

#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집단 특성 변화에 대한 전공 교사의 인식

박종운 · 류대성<sup>†</sup>  
(부경대학교 · <sup>†</sup>인천해양과학고등학교)

## Perception on Changes of the Characteristics of Examinee's Group for the Elective Subjects of Fisheries and Shipping Industry in Vocation Education Division CSAT by Fisheries and Shipping affiliate Teachers

Jong-Un PARK · Dae-Sung RYU<sup>†</sup>  
(Pukyong National University · <sup>†</sup>Inchon Marine Sience Highschool)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rends that the Fishery and Shipping Department teachers at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have noticed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nt pool taking the College Scholastic Achievement Test(CSAT) since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was first introduced in the CSAT in 2005. In addition, surveyed data from the study is highly desirable for researchers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pplicants for the fishery and maritime department in the CSAT. This study not only provides solid improvement on the selection of questions for the CSAT but also facilitates in the process of writing contemporary and relevant exam questions.

The survey included 76 Teachers from 12 High School of Fisheries and Shipping Industry.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Fishery and Maritime department in the CSAT after 2010 is due to the new governmental policy that encourages students in vocational schools to find employment rather than pursuing further education. Second, the biggest group of students who forgo taking the CSAT after 2010 is those with high marks at school. Third, prediction of outcome after declining to take the person for the time being would be kept to a minimum sustained was staring personnel at some point.

**Key words :** College Scholastic Achievement Test(CSAT),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Examinee's group, Fishery and Shipping,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 취업 후 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방안’의

발표와 함께 중등학교 직업교육 관련 정책의 변화가 있었고 그에 따라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자 집단에 변화가 나타났다. 수능 직업탐구 영역의 응시자 집단에 나타난 응시자수 변화 원인을 파악하고 응시자 집단 변화의 주도 집단을 파

<sup>†</sup> Corresponding author : 02-3704-3849, rdaesung@kice.re.kr

악하는 것은 앞으로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며 수능 직업탐구 영역 출제 방향과 관련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의 수산·해운전공 교사가 인식하는 수능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응시집단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 집단의 변화를 예측하고 수능 체제 개편에 따른 직업탐구 영역의 안정적인 출제 및 시행은 물론, 직업교육 중등학교의 취업 및 계속 교육 정책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연구 문제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탐구 영역의 수산·해운 과목 응시인원의 감소 원인과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 집단의 특성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응시인원은 향후 어떻게 예측되는가?

## II.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 변화

### 1.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률 및 취업률 변화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로는 [Fig. 1]과 같이 2002년 이전에는 취업률이 진학률보다 높았으나, 이후에는 진학률이 취업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이후 200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 왔는데 진학률도 그와 함께 증가 추세를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대학의 수적·양적 팽창과 정부의 동일계 정원 외 특별전형(2004학년도)과 수능 직업탐구 영역(2005학년도)의 정책 도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Kim, J. G. et al., 2012). 2009년을 정점으로 현재까지 진학률은 감소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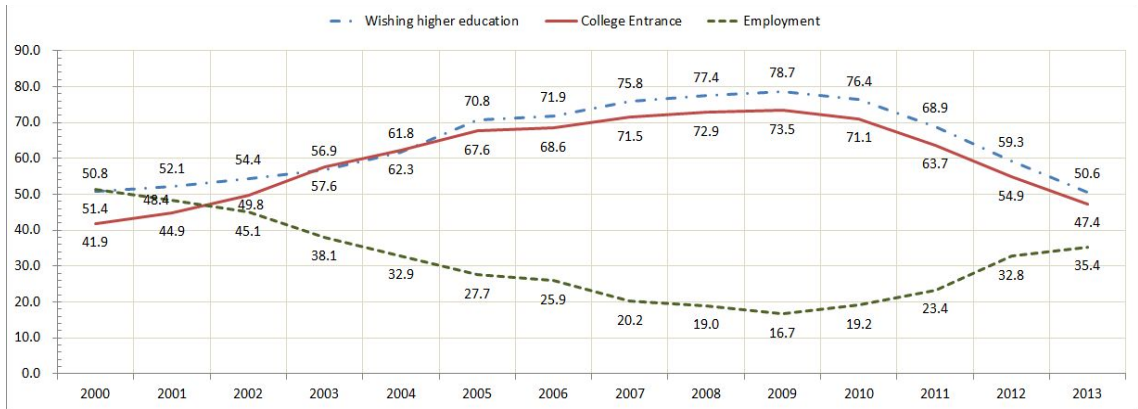
취업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정책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특성화고 졸업생의 진학 및 취업 분야를 살펴보면, 진학자는 전문대 진학, 대학교 진학, 각종 학교 진학, 교육대 진학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2000년 이후 전문대 진학이 감소하고 대학교 진학이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특성화고 졸업생이 계속 교육의 기회를 가지기를 원하고 대학 진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정책에 의해 취업자 수가 증가한 2010년 이후 특성화고 졸업생 중 취업자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분야 취업률이 증가하지 않고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특성화고 취업 역량 강화 정책이 학생의 경력 개발을 고려한 정책이 아닌 취업자의 양적 증가만을 도모하고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Choi, D. S. et al., 2011)고 우려된다.

### 2. 직업탐구 영역 및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자 수의 변화

대학수학능력평가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 수는 2005학년도 도입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을 정점으로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과 ‘고졸시대 정착을 위한 선 취업 후 진학 및 열린 고용 강화방안’의 발표와 직탐 응시자 수의 감소가 시기를 같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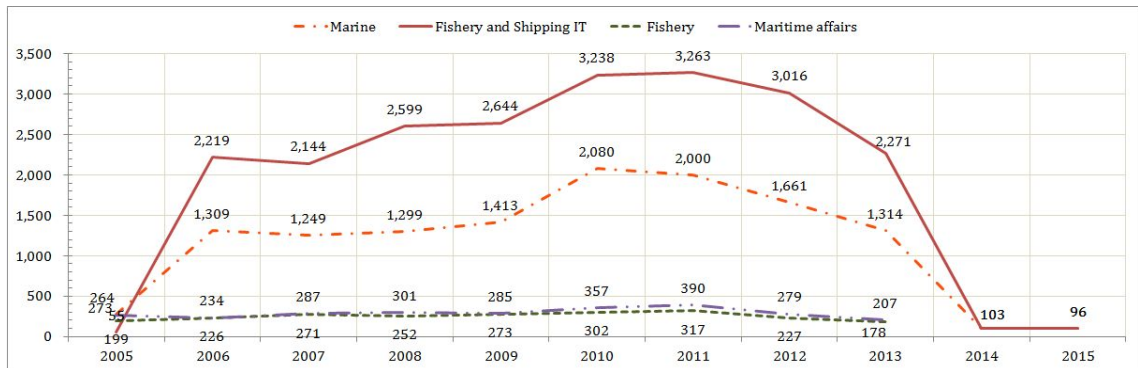
대학수학능력평가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응시자수는 [Fig. 2]와 같다. 2013학년도 이전까지의 수능체제에 의한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계열 선택과목은 해양일반, 수산·해운 정보처리, 수산 일반, 해사 일반 등 4과목이고, 2014학년도 수능체제 이후의 선택과목은 수산·해운이며 이에 해당하는 출제과목은 수산·해운 ①(해양 일반), 수산·해운 ②(수산·해운 정보 처리)이다. 이는 7차 교육과정의 수산·해운계열의 필수 교과가 해양 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수산 일반, 해사



Note : Percentage

Data : Ministry of education republic of Korea KEDI,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each year), retrieved from <http://std.kedi.re.kr/index.jsp>

[Fig. 1] College Entrance and Employment Rate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Note : Percentage

Data : KICE. CSAT application received results. CSAT press release(each year)

[Fig. 2] Change of applicants for the Fishery and Maritime Depart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일반 등 4과목이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수산·해운계열의 필수 교과가 해양일반, 수산·해운 정보 처리 등 2과목이므로 수능 선택과목을 교육과정의 개정과 호흡을 같이하여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014학년도 수능 이후 수산 일반, 해사 일반 과목의 응시자는 0이다.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과목 응시자 수는 직업탐구 영역 전체 응시자 수가 2010학년도를 정점으로 변화한 것과는 달리 2011학년도 수능을 정점으로 대체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에 현재까지 감소하고 있

다. 특히 2014학년도 수능은 전년과 비교하여 50%이하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수산·해운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3개 학교(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완도수산고)의 지정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의 체제 변화가 구체적으로 수능 응시집단 변화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조사하였고 제4장에서 구체적으로 조사 결과를 기술하였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Classification		N=76	
		N	Ratio(%)
Area	Busan	12	15.8
	Incheon	27	35.5
	Chungcheong	12	15.8
	Gyeongsang	14	18.4
	Jeunla/Jeju	11	14.5
Area total		76	100.0
Teaching Career (year)	under 10	18	23.7
	over 10 ~ under 20	22	28.9
	over 20	36	47.4
Teaching Career (year) total		76	100.0
Subjects	Fisheries and Marine	45	59.2
	Sailing and Engine	21	27.6
	etc. (Food processing, Frozen)	10	13.2
Subjects total		76	100.0
School type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25	32.9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51	67.1
School type total		76	100.0

### Ⅲ. 연구 방법

####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모집단은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 12개교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는 12개교이다. 이들 학교의 유형을 살펴보면 수산·해운 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3개, 수산·해운 특성화고 4개, 계열 혼합 특성화고 1개, 종합고 4개이다. 표본은 모집단 12개교의 수산·해운 전공 학과 수와 학급 규모 및 수산·해운 전공 교사 수를 감안하여 76명을 표집 대상으로 선정하여 설문을 발송하였고, 설문문에 성실히 답변한 76명의 설문 결과를 조사 대상으로 하였는데, 조사 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 2. 조사 도구

연구에 사용한 조사 도구는 자가 응답 형태의 설문지를 제작하여 수능 직업탐구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인원의 감소 원인과 영향 정도, 감

소한 응시자의 집단의 성격, 모의평가 원서 접수에 관련된 학교의 권유 정도, 수능 원서 접수 후 결시 원인, 향후 응시자수 변화 예측을 조사하였다. 선행 연구인 김진구(Kim, J. G., 2014)와 함승연(Hahm, S. Y., 2013-1)의 조사 도구를 참고하여 수산·해운계열의 특성을 적용하여 조사 도구를 개발하였다. 그리고 조사 대상 12개교의 교무부장 및 특성화(전문 또는 실과)부장 교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도구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적합성을 검토하여 최종 조사도구에 반영하였다. 응시인원이 줄어든 주된 원인별 영향의 정도에 대한 문항의 Cronbach's  $\alpha$ 는 .707, 응시인원 감소 현상의 원인 집단의 성격에 대한 문항은 .601, 수능 원서 접수 후 본 시험 결시 원인에 대한 문항은 .619 이다. 설문 문항은 영향 정도에 따라 5단계 Likert형 등간척도로 제작되었다.

#### 3. 자료 수집 및 분석

자료 수집은 이메일을 통해 행하였다.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12개교의 수산·해운 전공 교사 78

명에게 설문지를 발송(2014. 10. 6.)하였고 78명이 응답(2014. 10. 13.)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응답 보류 항목이 많았던 2장의 응답지를 제외하고 76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설문지는 IBM SPSS 22.0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집된 수산·해운 전공 교사의 응시집단 특성 변화에 대한 인식 정도와 경향을 조사하기 위해 기술통계 방법을 사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등을 분석하였고, 명목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기술통계의 교차 분석을 통해 명목을 람다로 설정하여 카이 제곱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5단계 등간척도로 구성된 문항은 독립 표본 T검정 및 일원 분산 분석에 의한 F검정을 실시한 다음 사후검정으로

등분산을 가정한 Scheffe를 유의 수준 0.05로 설정하여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 1. 응시인원 감소 원인과 응시인원 감소 현상의 원인 집단 및 응시인원 변화에 대한 전망

###### 가. 응시인원 감소의 원인

2010학년도 수능을 정점으로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응시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별 영향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은 <Table 2>과 같다. 응시인원 감소의 가장 주된 원인은 ‘정부

<Table 2> Main reasons of reducing on applicants for the Fisheries and Shipping Depart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after the class of 2010 N(%)

Variables \ Reas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Total
Industry	Industry	11(14.5)	43(56.6)	10(13.2)	4(5.3)	4(5.3)	5(2.6)	5(2.6)	76(100.0)
	Busan	3(25.0)	2(16.7)	7(58.3)	0(0.0)	0(0.0)	0(0.0)	0(0.0)	12(100.0)
	Incheon	1(3.7)	18(66.7)	1(3.7)	2(7.4)	3(11.1)	1(3.7)	1(3.7)	27(100.0)
	Chungcheong	2(16.7)	8(66.7)	0(0.0)	2(16.7)	0(0.0)	0(0.0)	0(0.0)	12(100.0)
	Gyeongsang	2(14.3)	12(85.7)	0(0.0)	0(0.0)	0(0.0)	0(0.0)	0(0.0)	14(100.0)
	Jeonla/Jeju	3(27.3)	3(27.3)	2(18.2)	0(0.0)	1(9.1)	1(9.1)	1(9.1)	11(100.0)
	under 10	2(11.1)	14(77.8)	0(0.0)	0(0.0)	0(0.0)	1(5.6)	1(5.6)	18(100.0)
	over 10 ~ under 20	4(18.2)	11(50.0)	2(9.1)	0(0.0)	4(18.2)	1(4.5)	0(0.0)	22(100.0)
	over 20	5(13.9)	18(50.0)	8(22.2)	4(11.1)	0(0.0)	0(0.0)	1(2.8)	36(100.0)
	Fisheries and Marine	7(15.6)	28(62.2)	2(4.4)	2(4.4)	4(8.9)	1(2.2)	1(2.2)	45(100.0)
	Sailing and Engine	1(4.8)	11(52.4)	5(23.8)	2(9.5)	0(0.0)	1(4.8)	1(4.8)	21(100.0)
	etc.	3(30.0)	4(40.0)	3(30.0)	0(0.0)	0(0.0)	0(0.0)	0(0.0)	10(100.0)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3(12.0)	8(32.0)	8(32.0)	1(4.0)	1(4.0)	2(8.0)	2(8.0)	25(100.0)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8(15.7)	35(68.6)	2(3.9)	3(5.9)	3(5.9)	0(0.0)	0(0.0)	51(100.0)
Total	11(14.5)	43(56.6)	10(13.2)	4(5.3)	4(5.3)	5(2.6)	5(2.6)	76(100.0)	

Notes: 1) Reasons ① ~ ⑦

- ① Government : Reducing of the number of students caused by reorganiza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 Master vocational high school, Composite high school → General high school)
- ② Government : Policy of employment and Evaluation of employment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
- ③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 Curriculum development and career guidance for vocation
- ④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 Declining on desires of higher education
- ⑤ Students : Increasing on the next stage of education not requiring results of the CSAT
- ⑥ Students : Preferring society science education division t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of the CSAT
- ⑦ Students Parents : Reducing on entrance students into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who graduated middle school because of the employment policy

차원의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56.6%)’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정부 차원의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라/제주는 27.3%로 나타나 다른 권역에 비해 낮은 반응률을 보였다. 부산은 ‘학교 차원의 특성화고 현장의 취업 중심 진로 지도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풍토 확산·정착’ 항목이 58.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부산에 위치한 부산해사고등학교(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취업 중심의 교육과정과 진로 지도가 안정적

이고 견고하게 정착되어 정부 정책보다 학교 내의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학교 유형에 따른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의 조사 결과에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정부 차원의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과 ‘학교 차원의 특성화고 현장의 취업 중심 진로 지도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풍토 확산·정착’이 동일하게 32.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 차원의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은 68.6%, ‘학교 차원

<Table 3> Effect on main reasons of reducing on applicants for the Fisheries and Shipping Depart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after the class of 2010

average(standard deviation)

Reaso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Variables	Industry	3.36(1.26)	4.50(0.72)	4.26(0.84)	2.96(1.30)	3.51(1.30)	2.49(1.06)	3.24(1.21)
	Busan (n=12) a	3.00(0.85)	4.00(0.60)	4.00(0.60)	2.08(1.16)	2.42(1.16)	1.83(0.94)	2.42(1.24)
	Incheon (n=27) b	2.96(1.32)	4.63(0.84)	4.41(0.89)	2.74(1.38)	3.63(1.08)	2.74(1.02)	3.44(1.12)
	Chungcheong (n=12) c	4.50(0.67)	4.67(0.49)	4.00(1.04)	3.58(0.79)	4.92(0.29)	3.00(1.21)	4.00(1.21)
	Gyeongsang (n=14) d	3.14(1.29)	4.43(0.76)	4.14(0.86)	3.14(1.29)	2.71(1.33)	2.00(0.78)	2.86(1.29)
	Jeonla/Jeju (n=11) e	3.73(1.27)	4.64(0.50)	4.64(0.50)	3.55(1.21)	3.91(0.94)	2.64(1.03)	3.27(0.65)
	F	4.36** b<c	2.06	1.44	3.21*	11.19*** a<b<d<c	3.38*	3.54* a<c
	under 10 (n=18) a	3.06(1.26)	4.33(0.97)	4.11(0.96)	2.67(1.14)	3.39(1.14)	3.06(1.00)	3.28(1.07)
	over 10 ~ under 20 (n=22) b	3.05(1.21)	4.45(0.80)	4.32(0.84)	2.64(1.43)	3.27(1.49)	2.59(0.96)	3.18(1.33)
	over 20 (n=36) c	3.69(1.24)	4.61(0.49)	4.31(0.79)	3.31(1.24)	3.72(1.26)	2.14(1.05)	3.25(1.23)
	F	2.6	1.0	0.4	2.5	0.9	5.1* a>c	0.0
	Fisheries and Marine (n=45)	3.44(1.25)	4.62(0.58)	4.38(0.83)	2.82(1.42)	3.56(1.27)	2.36(0.96)	3.31(1.16)
	Sailing and Engine (n=21)	2.95(1.32)	4.24(1.00)	3.90(0.89)	2.95(1.20)	3.29(1.55)	2.62(1.28)	3.00(1.41)
	etc. (n=10)	3.80(1.03)	4.50(0.53)	4.50(0.53)	3.60(0.70)	3.80(0.79)	2.80(1.03)	3.40(0.97)
	F	1.84	2.09	2.87	1.48	0.58	0.94	0.57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n=25)	2.48(0.92)	4.24(0.93)	4.28(0.68)	2.28(1.17)	2.76(1.09)	2.28(1.17)	2.60(1.00)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n=51)	3.78(1.19)	4.63(0.56)	4.25(0.91)	3.29(1.24)	3.88(1.24)	2.59(1.00)	3.55(1.19)
t	-0.52	-3.07*	-1.56	-0.08	-1.13	-2.06	2.05	
Total (n=76)	3.36(1.26)	4.50(0.72)	4.26(0.84)	2.96(1.30)	3.51(1.30)	2.49(1.06)	3.24(1.21)	

Notes: 1) Reasons ① ~ ⑦

- ① Government : Reducing of the number of students caused by reorganiza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 Master vocational high school, Composite high school → General high school)
- ② Government : Policy of employment and Evaluation of employment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
- ③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 Curriculum development and career guidance for vocation
- ④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 Declining on desires of higher education
- ⑤ Students : Increasing on the next stage of education not requiring results of the CSAT
- ⑥ Students : Preferring society science education division to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of the CSAT
- ⑦ Students Parents : Reducing on entrance students into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who graduated middle school because of the employment policy

2) Scale : 1 = No effects, 2 = rarely effects, 3 = common effects, 4 = a few effects, 5 = very well effects

3) \*\*\* < .001, \*\* < .01, \* < .05

의 특성화고 현장의 취업 중심 진로 지도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풍토 확산·정착'은 3.9%로 나타났다기 때문이다. 즉,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정부차원의 '정부 차원의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과 학교차원의 '학교 차원의 특성화고 현장의 취업 중심 진로 지도 및 교육과정 편성·운영 풍토 확산·정착'이 모두 응시인원 감소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차원 진로 중심 진로 지도 및 교육 과정의 영향은 미미하고 정부차원의 취업강화 정책을 응시인원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집단 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지역, 교직원경력, 표시과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 응시인원 감소 원인의 영향 정도

2010학년도 수능을 정점으로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응시인원이 감소하는 이유별 영향 정도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특성화고 교사의 인식은 <Table 3>와 같다. 응시인원 감소의 영향 정도가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차원의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4.50)'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충청은 4.00이상의 항목이 5개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2개로 나타났다. 이는 충청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응시인원 감소의 원인별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해석된다. 근무경력, 표시과목,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4.00이상의 항목이 2개 정도로 나타나 특별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일원 분산 분석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항목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지역별에서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 저하' 항목이 .001 수준에서 부산, 인천, 충청, 경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특성화고 개편에 따른 학생 수 감소' 항목이 .01 수준에서 인천, 충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특성화고 취업강화에 따라 대학진학을 희망하는 중학생의 특성화고 입학 감소' 항목이 .05 수준에서 부산, 충청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근무경력별에서 '직업탐구보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을 응시하거나 선호하는 학생

<Table 4> Leading group of reducing on applicants for the Fisheries and Shipping Depart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after the class of 2010 N(%)

Variables		Reason	Fine grade group secession	Midium grade group secession	Poor grade group secession	Total
Industry	Industry		38(50.0)	30(39.5)	8(10.5)	76(100.0)
	Busan		6(50.0)	2(16.7)	4(33.3)	12(100.0)
	Incheon		17(63.0)	8(29.6)	2(7.4)	27(100.0)
	Chungcheong		4(33.3)	8(66.7)	0(0.0)	12(100.0)
	Gyeongsang		6(42.9)	6(42.9)	2(14.3)	14(100.0)
	Jeunla/Jeju		5(45.5)	6(54.5)	0(0.0)	11(100.0)
	under 10		4(22.2)	12(66.7)	2(11.1)	18(100.0)
	over 10 ~ under 20		10(45.5)	12(54.5)	0(0.0)	22(100.0)
	over 20		24(66.7)	6(16.7)	6(16.7)	36(100.0)
	Fisheries and Marine		24(53.3)	19(42.2)	2(4.4)	45(100.0)
	Sailing and Engine		10(47.6)	8(38.1)	3(14.3)	21(100.0)
	etc.		4(40.0)	3(30.0)	3(30.0)	10(100.0)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11(44.0)	10(40.0)	4(16.0)	25(100.0)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27(52.9)	20(39.2)	4(7.8)	51(100.0)
	Total		38(50.0)	30(39.5)	8(10.5)	76(100.0)

Notes: The basis of the academic reports

증가' 항목이 .05 수준에서 10년 미만, 20년 이상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학교유형별에서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 항목이 .05 수준에서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응시인원 감소 현상에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학교차원의 취업중심 진로 지도 및 교육과정의 정착의 영향 정도가 크고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차원의 취업강화 정책의 영향 정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편 표시과목별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응시인원 감소 현상의 원인 집단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인원 감소 현상의 원인 집단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특성화고 교사가 인식하는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응시인원 감소 현상은 상위권(50.0%)이 주도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중위권(39.5%), 하위권(10.5%)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부산과 인천은 상위권이 응시인원 감소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별로 살펴보면 10년 미만과 10년~20년은 중위권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변하였고, 20년 이상은 상위권이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하였다. 표시과목별로는 모두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는 마이스터고 학생은 상위권과 중위권, 특성화고 학생은 상위권 학생이 응시인원 감소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 응시인원의 성적 변화

2010학년도 수능 이전과 비교한 직업탐구 영역의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인원의 성적 변화 경향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특성화고 교사가 인식하는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Effect on Leading group of reducing on applicants for the Fisheries and Shipping Depart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after the class of 2010

average(standard deviation)

Variables		Reason	Fine grade group secession	Midium grade group secession	Poor grade group secession
Industry	Industry		1.58(0.70)	1.75(0.82)	2.99(0.86)
	Busan	(n=12) a	1.58(0.51)	1.42(0.67)	2.58(1.00)
	Incheon	(n=27) b	1.63(0.79)	1.78(0.80)	2.81(0.79)
	Chungcheong	(n=12) c	1.67(0.78)	2.17(0.94)	3.58(0.79)
	Gyeongsang	(n=14) d	1.50(0.76)	1.64(0.84)	3.00(0.78)
	Jeunla/Jeju	(n=11) e	1.45(0.52)	1.73(0.79)	3.18(0.75)
	F		0.20	1.37	2.78*
	under 10	(n=18) a	1.67(0.77)	1.83(0.86)	3.06(1.00)
	over 10 ~ under 20	(n=22) b	1.68(0.78)	1.73(0.83)	3.00(0.62)
	over 20	(n=36) c	1.47(0.61)	1.72(0.81)	2.94(0.92)
	F		0.80	0.12	0.10
	Fisheries and Marine	(n=45)	1.53(0.69)	1.67(0.77)	2.96(0.77)
	Sailing and Engine etc.	(n=21) (n=10)	1.76(0.70) 1.40(0.70)	1.86(0.91) 1.90(0.88)	3.05(0.92) 3.00(1.15)
	F		1.15	0.57	0.08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n=25)	1.80(0.65)	1.32(0.56)	2.52(0.87)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n=51)	1.47(0.70)	1.96(0.85)	3.22(0.76)
	t		-0.43	-0.51	-0.99
Total	(n=76)	1.58(0.70)	1.75(0.82)	2.99(0.86)	

Notes: 1) Scale : 1 = Drastic range reducing, 2 = Narrow range reducing, 3 = Standard equal to before, 4 = Narrow range increasing, 5 = Drastic range increasing

2) \* < .05

3) The basis of the academic reports



가장 급격한 범위의 감소를 보인 집단은 상위권(1.58)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중위권(1.75), 하위권(2.99)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 근무경력,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다만, 학교 유형별로 살펴보면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중위권(1.32), 상위권(1.80), 하위권(2.52)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경우는 상위권 학생 보다 중위권 학생의 응시인원이 2010학년도 수능 이후 가장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상위권과 하위권 학생도 특성화 고등학교 보다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원 분산 분석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항목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다.

## 2. 모의평가 응시집단 및 수능 원서 접수자 특성

### 가. 모의평가 응시 강요·권유 현상 변화

학교현장에서의 2010학년도 수능 이전과 비교한 재학생에 대한 모의평가에 응시를 강요하거나 권유하는 현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학교 현장에서의 수능 모의평

가 응시에 대한 강요 또는 권유 현상은 1.38으로 매우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과 충청지역의 완화 정도가 조금 낮은 것을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매우 완화되었다. 근무경력과 표시과목 별로는 특이한 점 없이 모두 매우 완화된 것으로 응답하였다.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수능 모의평가 응시에 대한 강요 및 권유 정도가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 보다 더욱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 나. 수능 원서 접수자의 주된 결시 이유

수능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원서 접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주된 이유에 대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수능 원서 접수자의 가장 주된 결시 이유는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 않음(51.3%)’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수능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거나 학교의 취업 유도에 의해 진로 변경(32.9%)’으로 나타났다. 지역, 근무경력, 표시과목별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항목은 없었다. 반면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 않음(62.7%)’, ‘수능 원서를

<Table 6> The state of demand and invitation on applicants for the mock CSAT in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comparing to before the class of 2010

Variables		Frequency	Average	Standard deviation	t / F
Industry	Industry	76	1.38	0.56	0.26
	Busan	12	1.83	0.94	
	Incheon	27	2.19	0.96	
	Chungcheong	12	2.00	0.85	
	Gyeongsang	14	1.71	0.91	
	Jeunla/Jeju	11	1.55	0.82	
	under 10	18	1.56	0.51	1.71
	over 10 ~ under 20	22	1.23	0.43	
	over 20	36	1.39	0.64	
	Fisheries and Marine Sailing and Engine etc.	45	1.38	0.58	0.29
		21	1.33	0.58	
	10	1.50	0.53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25	1.28	0.46	0.94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51	1.43	0.61		
Total		76	1.38	0.56	

Notes: 1) Scale : 1 = Very relaxation, 2 = A little relaxation, 3 = Equal to before, 4 = A little intensify, 5 = Very intensify

<Table 7> Main reasons of not applicants for the Fisheries and Shipping Department in the CSAT though presenting an application of the CSAT N(%)

Reason		①	②	③	④	Total
Industry	Industry	39(51.3)	25(32.9)	8(10.5)	4(5.3)	76(100.0)
	Busan	4(33.3)	2(16.7)	4(33.3)	2(16.7)	12(100.0)
	Incheon	11(40.7)	12(44.4)	2(7.4)	2(7.4)	27(100.0)
	Chungcheong	11(91.7)	1(8.3)	0(0.0)	0(0.0)	12(100.0)
	Gyeongsang	10(71.4)	2(14.3)	2(14.3)	0(0.0)	14(100.0)
	Jeonla/Jeju	3(27.3)	8(72.7)	0(0.0)	0(0.0)	11(100.0)
	under 10	9(50.0)	6(33.3)	1(5.6)	2(11.1)	18(100.0)
	over 10 ~ under 20	13(59.1)	5(22.7)	4(18.2)	0(0.0)	22(100.0)
	over 20	17(47.2)	14(38.9)	3(8.3)	2(5.6)	36(100.0)
	Fisheries and Marine	26(57.8)	15(33.3)	2(4.4)	2(4.4)	45(100.0)
	Sailing and Engine	7(33.3)	7(33.3)	5(23.8)	2(9.5)	21(100.0)
	etc.	6(60.0)	3(30.0)	1(10.0)	0(0.0)	10(100.0)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7(28.0)	12(48.0)	4(16.0)	2(8.0)	25(100.0)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32(62.7)	13(25.5)	4(7.8)	2(3.9)	51(100.0)
	Total	39(51.3)	25(32.9)	8(10.5)	4(5.3)	76(100.0)

Notes: Prospect of changing

- ① Passing an entrance examination not requiring results of the CSAT
- ② Change on courses by employment or career counseling after applying for CSAT
- ③ Giving up the CSAT because of not preparing for the CSAT, though wishing higher education
- ④ Not for the purpose of applying for the CSAT but just presenting an application of the CSAT

접수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거나 학교의 취업 유도에 의해 진로 변경(25.5%)’, ‘대학 진학을 원하지만 시험 준비가 부족하여 중도 포기’, ‘원서 접수의 목적이 수능 응시가 아닌 허수’ 순으로 나타나 전체 평균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수능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거나 학교의 취업 유도에 의해 진로 변경(48.0%)’,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 않음(28.0%)’, ‘대학 진학을 원하지만 시험 준비가 부족하여 중도 포기’, ‘원서 접수의 목적이 수능 응시가 아닌 허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스터 고등학교 교사들은 진학보다 취업 중심의 진로지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 수능 원서 접수자의 결시 이유별 영향 정도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원서 접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이유별

영향 정도에 대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사가 인식하는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수능 원서 접수자의 결시 이유별 영향 정도가 가장 큰 항목은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 않음(4.1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 않음(3.95)’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의 전체 평균 유사한 응답률이 나타났다. 그러나 경상은 4.00이상의 항목이 0개로서 수능 원서 접수자의 결시 이유별 영향 정도가 비교적 낮은 적으로 파악되었다. 수능 원서 접수자의 결시 이유별 영향 정도를 근무경력, 표시과목, 학교유형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과 특별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일원 분산 분석과 독립 표본 T검정을 통해 항목별 차이를 검증해 본 결과, 지역별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거나 학교의 취업 유도에 의해 진

<Table 8> Effects on main reasons of not applicants for the Fisheries and Shipping Department in the CSAT though presenting an application of the CSAT average(standard deviation)

Reason		①	②	③	④
Variables					
Industry	Industry	4.18(0.90)	3.95(0.80)	2.55(1.14)	2.80(1.08)
	Busan (n=12) a	4.17(0.39)	4.00(0.00)	2.17(0.83)	2.33(0.78)
	Incheon (n=27) b	4.15(1.10)	4.19(0.74)	2.70(1.23)	3.07(1.11)
	Chungcheong (n=12) c	4.67(0.49)	3.50(1.00)	2.67(1.30)	2.67(1.30)
	Gyeongsang (n=14) d	3.71(0.91)	3.57(0.94)	2.71(1.07)	2.71(1.07)
	Jeonla/Jeju (n=11) e	4.36(0.92)	4.27(0.65)	2.27(1.10)	2.91(1.04)
	F	2.02	3.10*	0.72	1.09
	under 10 (n=18) a	4.00(0.97)	3.89(0.58)	3.00(0.91)	3.06(0.73)
	over 10 ~ under 20 (n=22) b	4.45(0.67)	4.18(0.85)	2.64(1.40)	3.18(1.22)
	over 20 (n=36) c	4.11(0.98)	3.83(0.85)	2.28(1.00)	2.44(1.05)
	F	1.49	1.38	2.61	4.12*
	Fisheries and Marine (n=45)	4.13(0.94)	3.91(0.85)	2.51(1.18)	2.87(1.18)
	Sailing and Engine (n=21) etc. (n=10)	4.38(0.67)	3.71(0.64)	2.43(1.08)	2.52(0.75)
	F	0.77	4.71*	0.93	1.16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n=25)	4.28(0.61)	3.96(0.45)	2.12(0.78)	2.48(0.87)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n=51)	4.14(1.02)	3.94(0.93)	2.76(1.23)	2.96(1.15)	
t	-3.67*	0.78	0.22	-0.67	
Total (n=76)	4.18(0.90)	3.95(0.80)	2.55(1.14)	2.80(1.08)	

Notes: 1) Reasons ①~⑦

- ① Passing an entrance examination not requiring results of the CSAT
  - ② Change on courses by employment or career counseling after applying for CSAT
  - ③ Giving up the CSAT because of not preparing for the CSAT, though wishing higher education
  - ④ Not for the purpose of applying for the CSAT but just presenting an application of the CSAT
- 2) Scale : 1 = No effects, 2 = rarely effects, 3 = common effects, 4 = a few effects, 5 = very well effects  
 3) \* < .05

로 변경' 항목이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근무경력별에서 '원서 접수의 목적이 수능 응시가 아닌 허수' 항목이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표시과목별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취업이 확정되거나 학교의 취업 유도에 의해 진로 변경' 항목이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고, 학교유형별에서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 않음' 항목이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 3. 응시인원 변화 예측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인원 변화 양상에 대한 수산·해운계 고등학교 교사의 예측 결과는 <Table 9>과 같다. 응시인원 변화 예측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항목은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 최소 응시인원으로 유지될 것임(43.4%)'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당분간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겠지만 2014학년도 수능 응시인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임(30.3%)',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최소 응시인원 시점에 증가세로 반전될 것임(23.7%)', '증가세로 전환될 것임(2.6%)'으로 나타났다. 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 교사는 매우 적었고, 대부분의 교사가 응시인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최소인원 수준에서 유지된다는 예측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2014학년도 응시인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다음으로는 최소인원에서 증가세로 다시 반전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지역, 근무경력, 표시과목, 학교유형 별로 살펴보면 전체 평균과 유의할 만한 차이점을 보이지 않았다.

<Table 9> Prospect on number of applying students for the Fisheries and Shipping Department of the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N(%)

Reason		①	②	③	④	Total
Industry	Industry	33(43.4)	18(23.7)	23(30.3)	2(2.6)	76(100.0)
	Busan	6(50.0)	2(16.7)	4(33.3)	0(0.0)	12(100.0)
	Incheon	8(29.6)	8(29.6)	9(33.3)	2(7.4)	27(100.0)
	Chungcheong	4(33.3)	4(33.3)	4(33.3)	0(0.0)	12(100.0)
	Gyeongsang	8(57.1)	2(14.3)	4(28.6)	0(0.0)	14(100.0)
	Jeunla/Jeju	7(63.6)	2(18.2)	2(18.2)	0(0.0)	11(100.0)
	under 10	6(33.3)	5(27.8)	6(33.3)	1(5.6)	18(100.0)
	over 10 ~ under 20	11(50.0)	5(22.7)	5(22.7)	1(4.5)	22(100.0)
	over 20	16(44.4)	8(22.2)	12(33.3)	0(0.0)	36(100.0)
	Fisheries and Marine	23(51.1)	11(24.4)	9(20.0)	2(4.4)	45(100.0)
	Sailing and Engine	9(42.9)	3(14.3)	9(42.9)	0(0.0)	21(100.0)
	etc.	1(10.0)	4(40.0)	5(50.0)	0(0.0)	10(100.0)
	Meister vocational high schools	15(60.0)	3(12.0)	7(28.0)	0(0.0)	25(100.0)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s	18(35.3)	15(29.4)	16(31.4)	2(3.9)	51(100.0)
	Total	33(43.4)	18(23.7)	23(30.3)	2(2.6)	76(100.0)

Nates: Prospect of changing

- ① Maintenance on the minimum number of applying students for the CSAT, after lasting of reducing state
- ② Increasing on the minimum number of applying students for the CSAT, after lasting of reducing state
- ③ Maintenance on the present number of applying students for the CSAT, after lasting of reducing and increasing state
- ④ Increasing on the number of applying students for the CSAT, after lasting of the present state

##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집단 특성 변화에 대한 수산·해운계열 고등학교 현장 수산·해운전공 교사의 인식이 어떠한지 조사하여 직업탐구 영역의 안정적인 시행과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0학년도 수능을 정점으로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응시인원이 감소하는 주된 원인은 정부 차원의 특성화고 취업강화 정책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 방안(2010.5)’ 발표 이후 당시 전문계고를 분야별로 특성화된 직업교육기관으로 개편하고 선 취업 후 진학을 강조하는 정책의 시행(Jang, M. H. et al., 2012)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차원의 취업 강화 정책의 영향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산업수요맞춤형(마이스터) 고등학교는 정부차원의 취업 강화 정책의 영향보다 학교차원의 취업 중심 진로지도 및 교육과정의 정착의 영향 정도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취업 강화 정책이 학교 교육과정의 개편과 진로지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가 특성화 고등학교보다 상대적으로 크며, 견고하고 안정적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되었다고 해석되어진다.

둘째,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응시인원이 감소의 원인 집단은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교 성적이 뛰어난 학생일수록 취업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진로준비행동을 활발히 수행(Kim, S. N., 2013)한 결과로 보

이다. 응시인원 감소에 대한 영향 정도 조사에서 주목할 점은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의 경우 상위권과 중위권의 영향 정도가 근소한 차이를 보여 비교적 전체 학생에게 고르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응시인원의 감소는 주로 특성화 고등학교의 상위권 학생과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의 중·상위권 학생의 미응시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로 인해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집단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수능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의 출제에 있어 난이도 조절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수산·해운 선택과목 모의평가 응시에 대한 학교현장의 강요 및 권유 현상은 매우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지역에서 강요 및 권유 현상이 매우 완화되었고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는 완화된 정도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모의평가 응시집단에서 본 수능에 응시하지 않는 허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이로써 모의평가 채점결과를 통해 본 수능의 평균점수를 예상하여 난이도 조절하는 기준에 있어 변화를 줄 필요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넷째, 수능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원서 접수자가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수시 특별전형에 합격하여 수능 성적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입전형에 있어 학생부가 차지하는 비율을 높이고 수시모집 정원을 확대해 가는 정책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수능 원서 접수자가 결시하는 비율이 높은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섯째, 수능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인원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 결과는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어느 시점에서 최소 응시인원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인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토대로 직업탐구 영역의

안정적인 운영과 직업교육 중등학교의 취업교육 및 계속교육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수능 직업탐구 영역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인원이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어느 시점에 최소 응시인원으로 유지될 것을 예상하여 응시집단의 성격 변화에 대응하는 문항의 난이도 조절이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변화된 응시집단 안에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타당도 높은 문항을 출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요구된다.

둘째,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인원의 감소 현상을 고학력 학생이 주도하고 있음과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의 응시인원 감소 정도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고려하여 수능 문항 출제에 있어 내용영역의 선정에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해사고등학교의 전공학과는 항해과와 기관과이므로 수산·해운 선택과목에 포함된 해당 내용영역을 출제함에 있어 2010학년도 이전과는 다른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셋째, 특성화 고등학교와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에 대한 각각 별도의 진로교육의 유연성 확보 및 학습경로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Choi, D. S. et al., 2011).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는 정부차원의 취업 중심 정책과 학교차원의 취업중심 진로교육 및 교육과정의 정착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진로교육의 유연성 확보의 차원에서 수능 직업탐구 영역에 대비하는 교육과정 편성을 통해 수능 수산·해운 선택과목을 충실히 이수하여 수산·해운 계열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공필수 교과를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학교 수업의 질을 높이고 전문교과 이수에 도움을 줄 것이다(Hahm, S. Y., 2013-2).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수산·해운 선택과목 응시인원의 감소 현상에 대한 원인 파악과 응시집단 성격의 변화 양상 및 향후 응시집단 변화 양상의 예

측을 통해 작위적으로 응시인원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데 노력을 허비하기보다 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취업 중심 특성화고 정책의 구조 속에서도 변화된 응시집단에 적합한 내용영역으로 타당하고 변별력 높은 수능을 운영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Choi, D. S. · Lim, E. · Choi, S. J. · Jung, J. C.(2011). Increasing Flexibility of Pathway in Secondary Vocational Education. KRIVET.
- Hahm, S. Y.(2013-1). Change on the Characteristics of Applying Group for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in the CSAT by Industry Department Teacher's Perception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JFMSE, 25(6). 1389~1407.
- Hahm, S. Y.(2013-2). Perception on outcomes and challenges of vocational education division CSAT by industry department teach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JFMSE, 25(5). 1148~1164.
- Jang, M. H. · Kim, J. W. · Choi, D. S. · Park, C. W. · Na, S. I. · Lee, Y. H.(2012). Performance Analysis of the active policies for employment and further study of high school graduates.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KRIVET.
- KEDI.(2014). Statistical yearbook of education 2000~2013, retrieved from <http://std.kedi.re.kr/index.jsp>
- KICE.(2004~2014), Results of an application of the CSAT in the class 2005~2015, Press release.
- KICE.(2004~2014), Results of marking CSAT (2005-2015), Press release.
- Kim, J. G. · Lee, G. N.(2014). Perception on Changes of the Characteristics of Examinee's Group for the Elective Subjects of Agriculture And Life Industry in Vocation Education Division CSAT by Agricultural Teachers of Specialized Vocational High School of Agriculture And Life Industry, JLCCI, 14(8). 409~438.
- Kim, J. G. · Park, Y. S. · Kim, K. H. · Park, D. S. (2012). A study on the reformation character of examination evaluative objective and behavioral areas of vocational education test to contain problem solving competencies,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31(3), 43~65.
- Kim, S. N.(201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ypes of Career Development and Job Satisfaction of Worker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32(3). 141~162.
-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public of Korea.(2012). Rearing plans for Work-to-School and Open employment for high school age settlement.

- 
- 논문접수일 : 2014년 12월 31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5년 01월 12일
  - 게재확정일 : 2015년 01월 12일